

서평 | Review

주변에서 중심을 바라보기: 월터 미놀로의 『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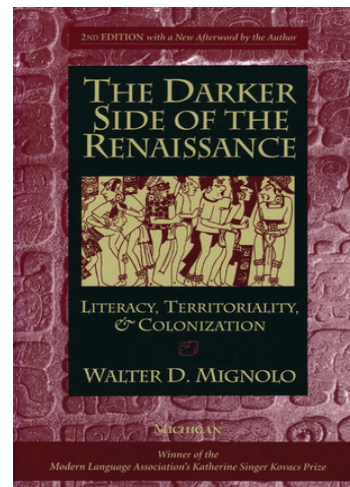
정동희

1. 상식의 전복을 위한 낯선 공간으로의 초대

낯설다. 처음 월터 미놀로(Walter Mignolo)의 『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The Darker Side of the Renaissance)라는 두툽한 책을 접하고 펼치기 전에는 ‘보다 어두운’이란 형용사에 눈길이 많이 갔다. 일반적으로 ‘르네상스’라는 용어는 중세의 암흑을 뒤로 하고 인간 능력의 무한성을 신뢰하며, 인간이 지닌 천부적 자질인 이성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질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긍정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기에 부정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보다 어두운’이란 표현을 저자가 왜 사용하였을까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다. 책 제목은 프랜시스 에이츠(Francis Yates)의 『조르다노 브루노와 신비주의 전통』(Giordano Bruno and Hermetic Tradition)에 대한 브로노프스키(Jacob Bronowski)의 서평 제목인 「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The Dark Side of the Renaissance)을 연상시켰다. 그런데 ‘보다 어두운’이다.

첫 장을 펼치고서 낯설음은 더해갔다. 이 책은 유럽의 르네상스에 관한 책이지만 동시에 스페인이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했던 당시에 대한 책

이며 스페인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화에 대한 책이기도 했다. 800년간 스페인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을 내몬 후 스페인은 최초의 중앙집권적 근대 국가로 변모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정신이 유입되면서 국민 문학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스페인 르네상스 문화가 만개하면서 소위 말하는 스페인의 ‘황금세기’가 시작되었다. 이 세기가 르네상스기와



『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 표지

일치한다. 그리고 스페인 16세기 문학을 공부하는 나에게 익숙한 시공간의 장이다. 그런데 미놀로는 이 역사적 장에서 머물지 않고 1492년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디딘 후 급속히 스페인의 식민지로 편입되기 시작한 라틴아메리카로 시각을 확대한다. 이제껏 르네상스를 논하면서 우리가 언제 르네상스를 라틴아메리카와 연결시켜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가? 현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연구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작금의 우리 현실에서 유럽이 르네상스의 찬란한 황금기를 만끽하던 16세기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적 영토에서 처녀지에 가까운 유럽 르네상스기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미놀로는 해부학적 관찰을 시도하고 있다. 16세기 라틴아메리카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도 미놀로의 관찰을 따라가기가 버거울 판인데 무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그의 섬세하고 날카로운 시각을 추적한다는 것은 낯설음의 극을 느끼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낯설음은 하나의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굳이 쉬클로프스키(Viktor Shklovskij)를 비롯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제시한 ‘낯설게 하기’ 개념을 들추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일상 속에 갇히면서 우리의

지각을 관습화된 틀 속에 고정시켜 버린다. 점차로 이 지각 능력은 자동화되면서 화석화의 과정으로 향하고 현상에 대한 기대 지평은 자동화가 가져오는 관습화 된 영역 내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일상 속에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던져진 낯선 현상은 자동화 된 일상적 인식의 틀을 헐파하고 지각의 시간을 연장하여 기대 지평의 확대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놀로의 『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은 바로 이런 효과를 우리에게 던져 줄 수 있는 긍정적 낯설음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 각인되어 있는 르네상스는 어떤 모습이며 미놀로가 던져주는 낯설음은 어떤 낯설음인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르네상스라는 용어의 정립 및 연구의 역사를 잠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르네상스 개념의 정립 과정

르네상스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대 문화의 부활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르네상스 시기는 화가인 조토(Giotto di Bondone, 1266-1337)가 활동하던 때부터 역시 화가인 틴토레토(Tintoretto, 1518-1594)의 사망까지를 일컫는다. 즉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시대의 기준을 화가들의 탄생과 죽음으로 설정한다는 자체가 르네상스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예술 활동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르네상스기 대표적 인문주의자인 로렌초 발라(Lorenzo Valla, 1407-1457)는 자유학예(liberal arts), 회화, 조각, 모델링, 건축과 밀접히 관련된 예술이 오랫동안 너무도 타락하여 문학 자체와 더불어 거의 사멸했으나 작금에 이르러 다시 소생하여 새로이 등장한 수많은 출중한 미술가와 문인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르네상스기를 묘사하였고 역시 인문주의자인 마르실리오 피치노(Marsilio Ficino, 1433-1499)는

르네상스기를 황금시대로 규정하면서 고대인의 경배를 받았으나 거의 잊혀진 것들이 실현되고 어둠 속에 묻혀 있던 플라톤의 가르침이 광명을 되찾았다고 평가한다. 최초의 예술사 저서로 평가받는 『예술사 평전』(*Le Vite dé più eccellenti pittori, scultori, e architettori da Cimabue insino á tempi nostri*, 1550)의 저자인 조르지오 바사리(Giorgio Vasari, 1511-1574)는 이 책의 서문에서 “결국 미술도 본질적으로 생물의 유기적 성장과정과 마찬가지로, 마치 인간의 몸처럼 태어나 성장하고 늙고 죽음에 이른다. 이제 미술이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완성의 경지에 이르는 경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살던 시대를 고대 예술의 재탄생(Rinascita)으로 규정하면서 ‘재탄생’이란 용어를 처음 도입하였다.

바사리가 사용한 ‘재탄생’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들어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질 미술레에 의해 확대, 강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총 17권으로 구성된 『프랑스사』(*Histoire de France*)중 1855년에 출간된 제7권의 제목을 ‘르네상스’로 붙이고 바사리가 제시한 Rinascita를 프랑스어인 Renaissance로 옮기면서 그 시기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부터 갈릴레오의 활동시기까지, 즉 15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까지로 규정하고 이 시기는 예술적 측면보다는 과학적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환언하면 미술레는 르네상스란 용어를 라틴 문학의 부흥이나 고전에서 영향 받은 미술양식에 국한하지 않고 역사의 한 시기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미술레의 르네상스 용어에 대한 19세기적인 개념 확립이 이루어지고 5년 후 세계는 이 개념을 정확하고 엄밀하게 발전시킨 르네상스 연구의 한 획을 긋는 대작과 만나게 된다. 르네상스 문화와는 그리 깊은 관련을 맺고 있지 않는 스위스 출신의 역사학자 야콥 부르크하르트(Jacob

1) Giorgio Vasari, “Proemio,” *Le Vite dé più eccellenti pittori, scultori, e architettori da Cimabue insino á tempi nostri*, 1550. [http://bepi1949.altervista.org/vasari/vasari02.htm]

Burckhardt, 1818-1897)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1860)는 르네상스 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저서로 유럽 역사학계에서는 르네상스 연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부르크하르트에 따르면 고대는 문화의 토대와 근원이며 존재의 목표와 이상이고 “전 시대를 대신할 의식적인 대안”이다. 그런데 고대를 부활시킨 이탈리아인들은 이 시대를 단순하게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이 재현의 과정을 자신들의 특유한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진행하면서 고대이면서 동시에 고대가 아닌 새로운 시공간을 창조하였다는 것이 부르크하르트의 논리이다. 즉 르네상스는 고대 문화에 대한 기계적 모방이 아니라 중세의 끝에서 발견한 새로운 감수성을 통해 고대를 재해석하여 근대로의 길을 만든 하나의 경이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이후 르네상스란 용어는 역사학의 전문 용어에서 벗어나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이끈, 환언하면 중세와 근대의 교량역할을 하는 하나의 시대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부르크하르트는 르네상스를 중세와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시간의 장이자 근대의 초입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런 정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시간에 있어서 단절이란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는 『중세의 가을』을 통해 르네상스는 중세와 완전히 결별한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중세와 근대의 요소가 혼재된 중세의 연장으로 파악한다. 이렇듯 이 작품의 출현을 통해 부르크하르트의 견해를 따르는, 혹은 비판하는 르네상스 역사, 철학에 관한 저서들이 출간되면서 르네상스 연구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III. 탈식민주의를 위한 사유

부르크하르트의 중세와의 절연과 이를 통한 르네상스 개념의 최대 긍정화 작업은 시간의 단절이라는 약점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의 주장은 유럽 문화의 우월성을 근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놀로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한다. 미놀로는 『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을 통해 인류사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고 ‘간주’되는 르네상스를 기존 연구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다. 그는 부르크하르트가 정립한 르네상스의 개념이 처놓은 차양의 그늘 아래 숨어 있던 음산한 실체의 흔적을 찾아 나서면서 이 스위스 역사학자가 그랬던 것처럼 경탄스러울 만큼의 문헌 고증과 독자들에게 커다란 지적 열등감을 안겨주는 박학다식함을 통해 인간을 재발견하고 그리하여 세계의 중심으로 신 대신 인간을 위치시킨 유럽의 르네상스—근대 초 시기에 유럽 백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아메리카 대륙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구축되어 가는지를 비연대기적 방식을 통해 그리고 있다.

미놀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많이 낯설다. 비록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하여 몇몇 신문 지상에 그와 그의 탈식민주의 학문 세계가 소개되었고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로컬 히스토리 글로벌 디자인』 등의 저서가 우리말로 번역되었는데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아직 큰 방향은 없는 듯하다. 푸코, 라캉, 들뢰즈, 데리다가 가지고 왔던 우리 지식 사회 내에서의 열풍과 비교해 보면 뛰어난 기호학자이자 탈식민주의 이론가인 미놀로에 대한 우리 지식 사회의 낮은 관심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도 여전히 1세계가 만들어 놓은 식민 유산의 틀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들 프랑스 학자들과 미놀로의 전공 분야가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참으로 희한하게도 미놀로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호미 바바(Homi Bhabha),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등 탈식민주의 이론의 선구자들

은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이제 낯선 인물들이 아니며 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미놀로의 세계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바바와 스피박은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 출신이며 사이드 또한 영국 치하의 팔레스타인 출신이다. 이 탈식민주의 이론 스타 3인방은 과거 영국 식민지 출신이고, 따라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며,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에서도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제국의 언어가 창조한 학술 출판 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반면 미놀로는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인 명문 대학인 듀크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지만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며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르헨티나 출신이란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들과 출발점이 다르다. 어찌 보면 『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은 저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공간과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유로부터 탄생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월터 미놀로

실제 미놀로는 서문에서 탈식민주의 이론화 작업에 있어 개인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가 근대/식민기로 간주하고 있는 시기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가 과학적, 철학적 담론에 적합하지 않는 언어로써 지위가 격하되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근대성의 언어, 헤겔에 따르면 ‘유럽의 심장’의 언어로 격상된 순간이라고 밝힌다²⁾. 또한 그가 『르네

2) Walter D. Mignolo, *The Darker Side of the Renaissance: Literacy, Territoriality, and Coloniza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5, p. viii. 이하 지나친 각주를 피하기 위해 본문 속에 직접 페이지 표시를 함.

상스의 어두운 부분』을 자신의 모국어인 스페인어가 아닌 영어로 집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스페인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현대 이론들의 논의에 있어서 주변부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학술서적들이 출판물 시장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니는 세계



월터 미놀로

에서는 스페인어 독자들보다 영어나 프랑스어 독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저자는 탈식민주의 이론 정립을 위한 정초 작업으로써 스페인/라틴 아메리카의 식민 유산들을 르네상스/근대 초에 대한 논의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 그리고 식민적 유산과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논의에 포함시키기 위해 스페인어로 책을 저술하는 것은 근대 이후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이후에는 영어에 의해 지배되어온 지적 논의에 참가할 수 있을 가능성을 부여하기 전에 미리 그 책을 주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즉 저자는 언어와 문자 체계를 통한 식민화의 과정을 밝히는 탈식민주의 학자로서 제국주의 언어로써 영어가 지닌 역사적 속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언어가 자신의 탈식민주의 이론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아이러니한 현 상황을 담담하게 묘사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1세계의 언어인 영어를 택하였지만 저자는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토대로써 유럽이나 미국 등 제 1세계의 철학자나 이론가들이 아니라 엔리케 두셀(Enrique Dussel)의 ‘근대성의 신화’ 개념, 글로리아 안살두아(Gloria Anzaldúa)의 ‘경계 지역’ 개념, 페르난도 오르티스(Fernando Ortíz)의 ‘통문화

화' (transculturation) 개념, 로돌포 쿠쉬(Rodolfo Kusch)의 '문화적 식균 작용' (Cultural Phagocytosis) 개념, 실비아누 산티아구(Silviano Santiago)의 '간 공간'(the inter-space) 개념 등 라틴아메리카 출신 지식인들의 학문적 성과들 및 모로코 출신의 작가인 압텔케비르 카티비 (Abdelkebbir Khatibi)의 '또 다른 사유'(Une pensée autre)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탈식민주의 연구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호미 바바의 『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는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쿠쉬의 옥시덴탈리즘 비판, 두셀의 근대성 비판, 안살두아의 식민화 과정에 있어서의 언어 문제 연구 등 라틴아메리카 출신 학자들이 이미 수행했던 작업의 영어권 버전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미놀로는 바바의 '사이 공간'(spaces in between) 개념에는 공감하지만 이 개념 역시 오르티스, 쿠쉬, 실비아누 산티아구 등이 제시했던 개념들을 영어로 재구성했을 따름이라고 주장하면서 영미 학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출신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높게 평가한다 (xiv-xvii).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와 제3세계 지성의 활동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실정에서 독자들은 처음 접하는 이 지역 지식인들의 이름에 생경함을 느낄 것이고 이들이 주창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기에 미놀로가 짧게 기술하고 있는 이들의 논의 전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들의 논의에 바탕을 둔 미놀로의 주장은 낯설음이 더욱 배가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IV. 체제 분석을 위한 언어와 공간의 재해석

『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은 문학, 기호학, 역사학, 문화 이론 등을 초학제적 연구방식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화 과정을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이 아닌 유럽적 세계관과 인식론의 투사와 확장의 결과라는 사실

을 언어, 기억 그리고 지도 제작술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놀로는 근대 서구 철학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스페인과 유럽의 초기 식민화 경험에서 탄생하였다고 본다. 특히 서구의 인식론, 현상학, 해석학, 지도 제작술 등은 식민적 타자인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식민화의 주체로서 유럽적 자아 즉 백인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유럽적 자아는 점차 유럽을 세계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유럽 중심주의 세계관의 형성에 토대가 되었다. 근대 서구 철학의 기원은 유럽 중심적인 발전론적 역사관을 제시한 칸트와 헤겔에 있으며 유럽 중심적, 백인 위주의 사유는 근대 철학의 근원적 배경으로써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 현상에 대한 근원적 검토를 위해 미놀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계몽주의가 중상주의의 성장과 노예무역을 통해 전개되었다면 르네상스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식민화와 함께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또한 르네상스의 어두운 이 부분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인식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종적이며 영토적인 계급체계에 대한 사상의 형성과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토대로써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미놀로는 『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을 관통하는 논리로 기존 논리에 대한 전복의 논리를 채택한다. 공간 보다는 시간, 그리고 언어에 특권을 부여한 것은 기존 서구의 위계질서이기에 저자는 이것을 전복시켜 공간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화와 유산 속에 존재하는 공간의 중요성이 재조명을 받게 되며 따라서 근대 서구가 과도한 특권을 부여했던 시간의 의미가 중화된다. 또한 그는 언어, 지역, 공간의 식민화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설명보다는 식민화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 공간(space in between)을 사유의 위치 및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이곳으로부터의 사유야말로 서구의 아메리카 대륙 식민화가 남긴 유산의 확실성에 대한 의심이자 비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작업을 통해 저자는 전통적인 사유의 틀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

기보다는 지금껏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무시되어왔던,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미놀로는 16세기 예술, 문학 작품, 지도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유럽 르네상스의 존재 이유이자 가치 그 자체인 ‘고전의 부활’이 실은 유럽 열강들의 식민 팽창 정책에 대한 정당화이자 도구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을 언어의 식민화, 기억의 식민화, 공간의 식민화 등의 3부로 구성하고 각 부를 2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나의 관심을 끈 부분은 언어의 식민화를 다룬 1부의 1장이다. 여기에서 미놀로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스페인의 언어학자 엘리오 안토니오 데 네브리하(Elio Antonio de Nebrija)의 대표작이자 스페인어 최초의 문법서인 『스페인어 문법』(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1492)을 중심으로 그의 글쓰기에 대한 철학과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들의 문법에 대한 글쓰기에 미친 그의 영향을 살펴보고 17세기 전반기에 출간된 또 다른 대표적인 스페인어 연구서인 베르나르도 데 알드레테(Bernardo de Aldrete)의 『스페인어의 기원』(Orígenes de la lengua castellana, 1606)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미놀로에 따르면 네브리하와 알드레테의 저서들은 800여년에 걸친 이슬람의 이베리아 반도 지배를 종식시키면서 출범한 통일 스페인 제국의 통일된 언어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막 시작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 사업에 필요한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즉 당대 유럽 최강 국가의 국어였던 스페인어는 철학이나 신학 등 학술 언어가 아닌 의사소통의 언어로 이 작품들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알파벳 문자 이론에 기반을 둔 스페인어 문법의 유포는 효과적으로 구어(spoken language)의 지역성을 소멸시키면서 아메리카 대륙의 목소리를 식민화하였다. 이렇게 스페인어는 광대한 아메리카 대륙에 산재했던 무수한 음성들을 억압, 억제하면서 식민지의 유일한 의사소통어가 된 것이다. 미놀로는 네브리하가 주창한 알파벳 문자 체계의 다른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우월성’이야말로 스페인 지성인들에게, 나아가 유

럽 백인들에게 자신들이 성취한 문화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 간의 단절성에 대한 지각을 가지게 하는 근원적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상형 문자 체제에 바탕을 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관료들은 아스테카 제국을 통치하였고 또한 스페인 식민자들은 이 체제의 힘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어 2부에서는 유럽 르네상스에 있어서 담론적 실천으로써의 역사, 보편성으로 간주되는 유럽적 이미지의 구축으로써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지식의 장르화와 조직화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미놀로는 유럽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화의 완성은 총과 대포를 앞세운 무력이 아니라 스페인,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로마 알파벳을 통해 창조하고 형성한 유럽적 개념의, 유럽적 형식의 문해력(Literacy)에 의해서란 사실을 밝히면서 언어를 통한 정복과 식민화의 과정과 의미를 도출해 내고 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마주했을 때 이들이 지닌 문화가 유럽인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텍스트와는 동일한 텍스트가 아니었기에 ‘차이’를 곧 ‘차별’로 전환하여 문명화된 유럽인들의 무지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한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이 책의 제3부는 지도 제작술에 투영된 유럽인들의 의식을 탐구하면서 공간의 식민화를 논의한다. 지도제작술을 다루는데 있어 미놀로는 예수회 소속의 마테오 리치(Mateo Ricci), 군인이었던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 도미니크회 소속의 디에고 두란(Diego Durán), 프란체스코회 소속의 베르나르디노 데 사아군(Bernardino de Sahagún), 인디아스 평의회(Consejo de Indias) 소속 지도 제작자였던 로페스 데 벨라스코(López de Velasco)등이 제작한 다양한 형식의 지도를 예로 든다. 그리고 이 지도들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우주관이 연장된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시공간의 의미 및 지도제작과 영토의 의미를 이 사유의 틀 속에서의 자아의 배치 문제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서구에서 제작된 지도가 일반화가 된 것은 유럽의 정치, 경제적 파워의 성장과 동시에, 특히 지도 제작

및 제국주의의 밀접한 관계,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적 경험의 결과로 저자는 파악한다. 그리고 저자는 구아만 포마 데 아얄라(Guaman Poma de Ayala)가 제작한 페루를 지도의 정상에 배치시키고 스페인을 아래에 위치시킨 지도를 소개하는데 이 지도는 케추아어족의 공간 개념을 이용한 것이며 동시에 스페인 지도제작술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저자는 일방적인 사유의 투사가 아닌 상호적 사유의 투사가 형상화된 이와 같은 지도야말로 두셀과 안살두아의 철학이 구체화시킨 공존의 시각을 보여주는 지도의 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존을 제시한 텍스트 혹은 지도는 식민주체의 우월성을 손상하기에 지금까지 억압되고 무시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진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에 이름을 부여하였고 영토를 사유와 결부시켰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각지에 지명을 부여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약도를 그리는 등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형식으로써 기능을 하였다. 미놀로에 따르면 결국 지도란 세계와 자아에 대한 시각을 이해하기 위한 개입의 공간인 것이다.

V. 주변과 중심의 인식론적 전도와 재배치

미놀로의 『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은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식민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존의 유럽 중심적 역사관을 탈피하여 유럽인들이 “만들어 놓은” 아메리카의 이미지가 어떻게 왜곡되어 가는지 그 과정과 함께 유럽의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역사 서술이 얼마나 큰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미놀로는 극단적인 반유럽 역사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고민이 녹아있는 새로운 이론적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실제 현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1세계의 시각이 지배했던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를 새롭게 해

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따라서 미놀로는 시대의 선형적인 연속 정보다는 르네상스/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 근대 초/식민기(early modern/colonial period), 계몽주의/계몽주의의 어두운 부분처럼 상반되는 것의 공존에 관심을 둔다. 결국 미놀로의 식민적 기호는 현재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식민적 유산을 드러내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근대성의 그림자를 탈식민화하기 위한 운동인 것이다.

르네상스 역사와 라틴아메리카 사회학, 그리고 탈식민주의 이론 연구에서 이 책은 분명 현대의 고전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런데 이 자격은 단순히 미놀로 자신의 박학다식함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사료를 통한 실증적 분석과 현대의 이론적 논의들 간의 적합한 조화를 통해 부여된다. 하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자가 서문에 밝힌 대로 이 책을 자신의 모국어인 스페인어가 아닌 영어로 집필해야만 했던 이유이다. 과거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결코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새겨진 대표적인 식민 유산인 영어가 현재 학술 세계의 언어이고 스페인어로 집필한다는 것은 곧 학술 활동의 중심지에서 자동적으로 멀어진다는 현실의 논리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저자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영어의 제국주의적 권력과 앵글로 색슨적 세계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면서 오히려 현재에 있어 영어의 권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적하고 싶은 점은 16세기 르네상스/근대 초의 음침한 부분을 다루면서 지나치게 현대 이론들과의 접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과거 라틴아메리카의 식민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르네상스기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들에 대한 검토 작업이 없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만일 저자가 부르크하르트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에 대한 검토를 통해 르네상스기는 이전과 달리 개인주의의 출현과 함께 대의를 위해서는 그 어떤 악행도 정당화 될 수 있었고 현

실적으로 냉정하게 타산을 맞추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났다는 스위스 역사학자의 설명을 관심 있게 보았다면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식민화 작업에 대한 설명은 보다 풍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은 방금 위에서 밝힌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적 세계를 풍성히 해 줄 지식의 보고이다. 전혀 생소한 사건들과 낯선 이론가들의 사유가 종횡무진하는 이 책을 읽는 것은 실로 고된 독서의 경험일 것이다. 하지만 이 낯설음을 극복하기 위해 약간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의 시야는 더욱 넓어질 것이고 우리의 사유는 더욱 깊어지면서 고됨은 곧 만족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미놀로는 역사적 관점을 전복한다는 것은 이론적 운동이자 동시에 이념적인 운동이라고 말한다(p. 312). 그래서 그는 학문적 중심의 관점으로부터 주변부 사회들을 바라보는 대신 역으로 학문의 주변부로부터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중심들을 바라보길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것이 『르네상스의 어두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

정동희 - 서울대학교 강사